

# 방송사의 꽃 '아나운서'

채널A 아나운서 손제원

최근 방송 프로그램이 뉴스, 교양, 다큐멘터리, 예능, 스포츠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아나운서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단지 정보를 전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엔터테이너의 역할도 요구되면서 아나운서와 엔터테이너의 합성어인 '아나테이너'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지요. 앵커로서 뉴스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때로는 예능 프로그램의 MC가 되기도, 때로는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맡기도, 또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하며 '방송사의 꽃'으로 불리는 아나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입니다. 매년 주요 방송사의 아나운서 공개 채용 경쟁률은 1000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지요. 하지만 아나운서에 대한 이런 높은 관심과 달리 아나운서 직업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나운서는 주어진 대본만 읽는 사람' '아나운서는 시사이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예쁘고 잘생기기만 하면 아나운서가 될 수 있다'라는 오해가 대표적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아나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 ▼ 아나운서가 하는 일은? 주어진 대본만 읽는다? NO!

아침 뉴스 진행하는 아나운서의 출근 시간은 새벽 4시 30분!  
 뉴스원고 작성→뉴스에 활용될 동영상 선별→영상에 덧붙일 목소리 더빙  
 ▶글쓰기 능력, 뉴스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능력은 필수!

아나운서들은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아침 일찍 시작되는 뉴스의 진행을 맡을 경우, 출근 시간도 매우 이르지요. 다음의 일과표를 보세요.

### ※ 아나운서의 일과

오전 4시 30분	출근
오전 4시 30분~오전 6시 40분	△뉴스 동영상 선택 △원고작성 △음성 더빙 △분장 △리허설
오전 6시 40분~오전 8시	뉴스 진행

채널A의 손제원 아나운서. 손 아나운서의 경우 오전 6시 40분에 시작하는 아침뉴스를 준비하기 위해 오전 4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자마자 아나운서가 하는 일은 당일 뉴스에 활용될 동영상을 직접 고르고, 원고를 작성한 뒤 영상에 맞게 더빙을 하는 것 등입니다.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주어진 대본만 읽는 것이 아니지요? 원고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뉴스에 활용될 동영상을 고르는 일도 아나운서의 역할입니다. 원고를 직접 작성하려면 글쓰기 능력도 갖춰야 하고, 뉴스에 활용될 동영상을 고

르기 위해서는 뉴스의 핵심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짚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지 재빨리 확인하고 앵커 멘트를 더욱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도 아나운서의 몫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서둘러 의상실로 향해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하지요. 이후 뉴스가 시작되기 전 아나운서는 앵커자리에 앉아 대기합니다. 카메라 옆에 있는 프롬프터를 보고 말을 전달하는 아나운서. 프롬프터를 보면서 뉴스를 진행할 때는 시선 처리가 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아나운서에게 필요한 자질은? 주어진 대본만 읽는다? NO!**

속보, 방송사고 등...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뉴스 스튜디오

아나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직업!

▶순발력, 돌발상황 대처 능력은 필수!

▶포박포박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노력도 기울여야!

아나운서는 뉴스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갑자기 프롬프터가 꺼지는 방송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프롬프터가 꺼졌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할 순 없으므로 아나운서는 뉴스의 내용을 사전에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생방송의 경우 갑자기 속보가 나와 급작스레 보도해야 하는 일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은 필수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는 아나운서에게 명확한 발음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책에 나온 어려운 단어들을 표시한 뒤 발음하는 연습을 꼭 해야 하지요. 또한 최근 두드러지는 이슈가 있다면 그 이슈와 관련된 용어와 지식들을 폭넓게 습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 **아나운서가 되려면? 총 4단계의 아나운서 입사 시험 통과해야**

대부분의 방송사 아나운서 입사 시험, 전공학과 제한은 없어  
단 까다롭기로 유명한 총 4단계의 입사 시험 치러야 한다  
▶아나운서 되려면 방송사 입사 시험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아나운서가 되는 과정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아나운서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언어 관련 학과나,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등을 전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학과들을 전공하지 않아도 아나운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를 선발할 때 전공 학과의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아나운서에 합격하려면 단순히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방송사 입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 ※ 아나운서 방송사 입사 시험 진행 과정

서류전형 → 카메라테스트 → 필기시험(논술, 작문, 시사상식) → 면접

아나운서 방송사 입사 시험은 방송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서류전형.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역량을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소개서, 어학시험 성적과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등을 확인하지요. 표준어를 사용해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만큼 뛰어난 언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카메라테스트는 일반적으로 20초 정도 길이의 뉴스 멘트를 읽어보고 녹화하는 ‘뉴스 리딩’을 하거나 MC로서 프로그램 진행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 등으로 이뤄집니다. 눈빛, 목소리, 태도 등이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 얼마나 호감을 주는지,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등을 점검하는 시험인 만큼 목소리나 발성, 발음, 태도 등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문 및 논술 시험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방송사에 따라 200자 원고지 5장 이상의 긴 분량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평소 자신의 생각을 글을 통해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비롯해 국제 정세나 이슈 등 상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면접은 대체로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가치관과 사회성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나운서가 되려면 이와 같은 방송사 입사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의 경우 방송사에 따라 실무면접과 임원면접 등으로 세분화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 ▶ 아나운서,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올바른 언어습관 키워라!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독서를 많이 하면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단어의 수를 늘리고 문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속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평소의 언어습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욕설과 비속어를 자제하며 올바른 언어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채널A 손제원 아나운서의 말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자제하며 올바른 언어습관을 키우라고도 조언해줍니다. 아나운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잘 알겠지요?

아나운서들은 치열한 입사 시험을 통과해 자신의 꿈을 이룬 뒤에도 카메라 앞에 나서는 짧은 시간을 위해 뒤에서 수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그리고 예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나운서를 꿈꾸지 말고, ‘아나운서가 되어 어떤 꿈을 이루겠다’는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좀 더 진정성 있게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길 바랍니다.